

# 건축사는 시공업을 하자고 시공업체들처럼 요구하지 말자

But, We don't demand for Construction Work

朴淳鍾/건축사사무소 예지

by Park, Soon-Jong

지금 우리 건축사계의 최대 현안문제인 시공업체들도 설계일을 하겠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이라고 하여 요구하고, 종합건설업법의 입법을 통하여 요구하며, UR에 대응하기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시류에 편승하여 요구하고 있다. 설계자가 시공도 하겠다거나 시공자가 설계도 하겠다 하여도 못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분업화와 전문화에 의한 협력으로 모든 문화와 문명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설계와 시공은 분리 시행되며, 일관장치산업인 화학공장 등 플랜트산업으로서 기능만이 요구되는 구조물에서 턴키베이스식의 설계와 시공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아마도 외국의 설계와 시공업체간에 협력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설계자가 시공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설계나 시공업체가 외국에 진출하여도 설계를 하면 시공을 못하고 시공을 하면 설계를 못하게 설계와 시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설계와 시공의 통합은 국제화와 UR에 아무런 도움이 아니될 것이다.

시공업체가 설계업도 한다면 설계자가 시공자를 지도 견제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사라질 것이며, 이득금이 많고 시공이 간편한 건물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즉 건축주는 건축비전문가로서 시공자의 처분에나 매달리는 꼴이 된다.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시공회사의 생리상 건축예술문화와 창조적인 건축물은 사라지고 싸구려 기술주도형의 멧없는 건물만이 대량 생산될 것이다.

그의 적절한 실례로 어떤 대재벌 건설회사의 본사와 똑같은 모조품 건물이 우리 지역에도 2군데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셀 수없이 많은 모조품 건물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화가의 그림과 화공의 그림이 다르듯이 화공의 그림은 모조품이며 생명력과 혼이 없는 그림이다. 결국 건축가는 없어지고 건축제도공만이 남을 것이다.

건축물이란 그 장소에 그만의 개성적인 형태로 그 시대의 문화를 말없이 대변하는 역사의 증언자 이어야지 군대의 막사처럼 똑같은 모조품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재에도 음성적으로 재벌 건설회사들은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직원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며 소위 단종면허 건설회사도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업을 하는데 그 사무소의 도면을 건축사협회 도서검토시 보면 실습생 정도의 도면수준으로서 타건축사사무소의 명예를 깎아먹는 도면들이었다.

만약 모든 건설회사가 설계업을 하게 된다면 관측활동의 방편으로 설계비는 무료이고 공사비만 받는 형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감리도 없어지고 부실시공 위법시공도

강력한 로비력으로 처벌을 벗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수준은 급속히 퇴보할 것이며, 건축제도공만이 존재하는 중에 유명하였던 건축가들은 음성적으로 설계한 도면을 들고 건설회사의 도장을 받으러 다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공회사들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세계상 금융상 막대한 혜택을 받고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성과는 인정한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는 세계혜택은 고사하고 도서등록에 따른 세원포착으로 시장형성가격 보다 높은 보수기준가격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유자의 문턱은 한없이 높고, 건축주 시공자의 부실 위법 시공의 처벌도 대신 받으며 의붓자식처럼 영세하게 살아왔다. 그러는 중에도 최근 중국의 국제적인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건축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이 크게 반성할 일은 건축기사 시절 그렇게 열심히 건축예술의 열정에 사로잡혀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만들던 정열은 어디가고 자영을 하는 건축사건 쉬쉬하며 타영을 하는 건축사건(대형건설회사 소속, 단종건설회사 소속, 자본주에게 소속, 여러명의 부장에게 소속) 사무책상, 쇼파만 요란하고 제도책상도 없이 여직원 손으로 도장을 남발하여 사회로부터 곱지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치료 하는데, 건축사는 건축주를 몇번 만나 계획설계나 하는지 우리 건축사 스스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여야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작품 설계능력이 곧 업무수주 능력이어야 하는데 안되는 건축허가 잘 받아 허가비 받고, 안되는 준공 잘해주고 준공비 받고, 고스톱치고 골프쳐서 푼돈 잘 잃어주는 부장 여러명 두거나 건설회사 사장님 잘모시는 능력이 업무수주 능력인 풍토를 우리 건축사 스스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할 시간이나 있는지?!

건축물은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시공자의 위법 부실공사의 책임을 모두 설계감리자의 감시부실로 돌리고 처벌위주의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그리고 건축사 스스로의 안이한 생각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재인식 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처벌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위법을 하면 한만큼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건축주, 시공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울지 않는다고 젖을 안주면 아이는 죽고만다. 건축사들이 울지 않는다고 위법행위자도 위법에 의한 이득권자도 아닌데 억지춘향으로 희생양으로 처벌만 계속한다면 아이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 아이는 울줄 모르는 장애자 일지도 모른다. 장애자라도 자식은 자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건축예술문화는 없고 편법과 위법과 부당한 이득만 추구하는 건축물의 주검만 있게 될 것이다.